



노명호 회장이 제16대 미주 동창회장에 취임하고 며칠 뒤 동창회 사무실에 직접 찾아와 1만달러를 기부한 성낙호(치대 63) 동문을 시작으로 동문들의 종신이사 가입 행렬이 이어지면서 재정자립기금(Century Foundation Fund)이 4월30일 현재 101만1971달러를 기록했다.

노 회장 임기 중 3000달러 이상의 회비를 낸 종신이사는 무려 73명이 늘었다. 이중 1만달러 이상의 회비를 낸 골드이사가 19명, 5000달러 이상을 낸 실버이사가 8명이나 된다. 종신이사에 가입하겠다고며 체크와 함께

보내온 편지들에는 가슴뭉클한 사연들도 많았다. 세상을 떠난 남편을 기리기 위해 동문의 미망인들이 종신이사 회비를 보내오거나 손녀딸의 명문대 입학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골드이사로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왼쪽 사진은 직접 동창회 사무실을 찾아와 1만달러 종신이사비를 낸 성낙호 동문. 오른쪽 사진은 동문들이 종신이사 회비와 함께 보내온 편지들.